

진중권 "한명숙 사건은 VIP 숙원사업, 명분 만들어 사면 계획"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한명숙은 친노의 '어머니' 같은 존재"
"사면 해주려는 계획...대통령이 제 식구 잘 챙긴다. 자상한 가장"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검찰 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 "한명숙 사건 재수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VIP(문재인 대통령) 숙원사업으로 보인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VIP 본인도 (민주당) 대표 시절 '재심'을 주장한 바 있다"며 "재심이 가능하지 않고 본인도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전과자들 줄 줄이 증인으로 내세워 저렇게 이슈를 띄우는 것은 검찰을 때려 적당한 도덕적 명분을 만든 뒤 사면을 해주려는 계획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를 통해 '한 전 총리가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문 대통령이 한 전 총리를 사면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진 전 교수는 "이미 70대 후반에 접어든 분(한 전 총리)을 사면해 다시 정치적으로 기용할 것 같지는 않고, 일종의 '신원'이라고 할까"라며 "이분이 친노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검찰의 별건 수사에 걸렸으니 억울하기는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제 식구는 잘 챙긴다. 자상한 가장"이라고 했다.

한편 진 전 교수는 19일엔 "문재인 대통령 퇴임 연설은 내가 말았으면, 기회는 아빠 찬스였습니다. 과정은 엄마가 말았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라며 "지난 5년의 업적, 요약 잘 했죠"라고 했다. 지난 2017년 문 대통령의 취임사에 들어있던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



Jungkwon Chin
7시간 · 📍

문대통령 퇴임연설은 내가 말았으면.

"기회는 아빠 찬스였습니다. 과정은 엄마가 말았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지난 5년의 업적, 요약 잘 했죠?

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다"를 비튼 것이다.

또 '참모 때린 진중권' 文 퇴임연설은 내가 말았으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전·현직 청와대 참모들을 재차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남이 써주는 연설문을 그냥 읽는 의전 대통령"이라고 비판해 참모들과 실전을 벌였던 그는 19일 "문 대통령 퇴임 연설은 내가 말았으면"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기회는 아빠 찬스였습니다. 과정은 엄마가 말았습니다. 결과는 뻔했다"라고 쓴 뒤 "지난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페이스북 캡처

5년의 업적, 요약 잘 했죠?"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라는 국정 방향을 '조국 사태'에 빚대 진보 세력의 부족한 윤리의식을 예들러 비판한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전날 밤 자신의 한 일간지 칼럼을 놓고 "사흘 동안 공들여 쓴 글인데, 저쪽(청와대 참모들)에서 답변이 없다"고 했다. 한 신문에 기고한 '김대중·노무현 연설엔 있고, 문 대통령 연설엔 없는 그것'이라는 칼럼이다.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이 유기한 대통령직(職)의 윤리적

기능에 관한 문답"이라며 "윤미향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공화국의 핵심적 가치인 '공공선'을 수호하는 윤리적 책무를 방기했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논점도 파악 못한 채 대통령이 교정 보는 사진이나 올려놓고 '교정 봤으니 사과 하라고 일빠진 소리나 하고 있다'며 '청와대 참모들이 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은 개인적 불행'을 넘어 국가적 불행"이라고 했다.

그는 "내가 하는 얘기가 모

두 옳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토론과 논쟁을 통해 검증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머리가 온통 군사적 마인드로 차 있으니, '비판'을 하면 무조건 '공격'으로 받아들여 메시지를 반박하는 대신에 메시지를 무력화할 생각만 한다"고 했다.

진중권 "김어준, 이분의 코가 없으면 나라 무너진다"

"냄새가 난다"며 음모론 제기하는 김어준 비판

여권을 연일 비판하고 있

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8일 방송인 김어준씨를 겨냥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은 이분의 천재적인 후각능력. 이분의 코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라고 했다. 김씨가 "음모론 냄새가 난다"고 해왔던 말을 패러디해 비꼰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이 분(김어준씨)은 대한민국의 정신적 대통령"이라며 "매일 국민들에게 일용할 영혼의 양식을 준다"고 했다.

김씨는 전날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무주택자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어났다. 김씨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하면서 무주택자에 대해 "집도 없으면서"라고 말했다. 김씨는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집 있는 사람이 많고, 집 있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냥 받아들였다.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씨의 발언을 두고 무주택자는 비판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어났다. 일부 청취자들은 "집이 없으면 국회의원이 개정하고자 하는 법을 반대하면 안 되는 거냐"라고 비판했다.



▲ 방송인 김어준씨.

北이 이런 집단인 줄 지금 안 사람들이 나라 떠맡은 건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협력사무소가 폭파되고 이 지경까지 오니 화도 나고 좌절감을 느낀다"고 했다. 북한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

이 더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는데 대다수 한국 국민은 북의 이런 모습이 그다지 놀랍지 않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은 "북한도 정상 국가라면 기분을 지켜달라"고 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윤 의원은 2018년 3월 대북 특사로 평양에 다녀오고 3차례 남북 정상 회담에서 대통령을 보좌했다.

이런 사람이 북을 정말로 '정상 국가'로 알고 있다는 건가. 인간으로서 누릴 주권의 기본 권 자체를 말살하고, 권력을 세습하고, 공개 처형을 밥 먹듯 하며, 정치범 수용소를 운

영하고, 위조지폐와 마약을 거래하고, 국제공항에서 화학무기로 사람을 암살하고, 심지어 우리 영토 민간인들을 향해 포격을 한 집단이 '정상 국가'로 보인다는 것이다. 속자

고 작정을 한 듯하다.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이 대북 특사 파견 제의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전례 없

송정현 변호사 사무소

www.songlaw.ca

부동산, 상법, 회사법, 이민법, 유언/상속법

T: 403-764-0231 / E: daniel@songlaw.ca

#312 - 14 Street NW, Calgary, Alberta T2N 1Z7